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16. 8. 29.(월)	홍보담당	홍보팀(02-880-5054, 9072)
담당부서	학위수여: 학사과/행사: 총무과	문의	학사과(02-880-5033) 총무과(02-880-5093)

제 목: 서울대학교 제70회 후기 학위수여식

□ 서울대학교는 제70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2016년 8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851명, 석사 1,000명, 박사 577명 총 2,428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 성낙인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그동안 다져온 역량과 지혜, 패기, 열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과감하게 맞서 나아가자 하는 신념과 용기를 갖기 바란다” 고 강조했다. 이어 성총장은 졸업생들에게 “끊임없는 자기성찰, 헌신과 배려를 통해 인간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며 “따뜻한 감성, 충실한 지식, 창조적 지혜를 통해 우리 사회와 지구촌의 문제들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학위수여식사 별첨1>

□ 학위수여식 축사 연사로 서정화 총동창회장과 40년 가까이 한센병 환자 치료를 통해 의료복지 증진에 헌신해온 김인권 애양병원 명예원장(서울대 의대 1975년 졸업)을 초빙하였다. 김인권 명예원장은 의대 졸업 후 소록도병원, 그리고 한센병 전문병원인 여수 애양병원에서 한센병 환자의 치료에 평생을 헌신해오며 진정한 인술(仁術)을 실천해왔다. 서정화 총동창회장은 지성과 겸손, 참여와 봉사정신을, 김인권 명예원장은 성실하고 즐거운 사회생활, 자신의 능력과 선택에

대한 믿음과 자부심 등을 각각 축사에서 강조하였다. <축사 자료 별첨2, 3>

□ 서울대 학생들의 대표적인 봉사단체인 나눔실천단 단장과 새내기 오리엔테이션 멘토단 단장, 관악봉사상 수상(2014년)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공헌활동을 실천해온 산업공학과 최교윤 학생이 졸업생 대표 연설을 맡았다. 학부 마지막 방학인 이번 여름방학에도 베트남 빈딘에서 빗물 정수시설을 짓는 것을 돕고 현지 학생들의 공부를 가르치는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다. <대표 연설문 별첨4> 전체 학위수여식 행사 후 각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별로 학위수여식을 진행했다.

□ 주요 식순

- 학사보고, 학위수여식사(총장), 졸업생 대표 연설(최교윤, 산업공학과)
축사(총동창회장, 김인권 애양병원 명예원장), 학위수여, 상장수여, 교가제창

* 붙임

- 학위수여식사(총장), 축사(서정화 총동창회장, 김인권 명예원장),
졸업생 대표 연설문(산업공학과 최교윤)

【별첨1】 총장 학위수여식사

「제70회 후기 학위수여식」 식사

2016. 8. 29.(월) 10:30

서울대학교 체육관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영예로운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동안 헌신과 열정으로 지도해주신 교수님과 직원 여러분, 사랑과 정성으로 뒷받침해주신 학부모님, 그리고 물심양면을 도움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대학교는 진리탐구와 학문창달을 선도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격동의 현대사를 헤쳐 나오면서 사회 각 분야에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한 때 전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 어려운 이웃 나라들을 돕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는 곧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맥을 같이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서울대인은 한반도의 도서벽지를 찾아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눈부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베트남·라오스·미얀마·인도네시아·필리핀·중국(내몽고)·몽골·네팔·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를 넘어 중동의 이집트·이라크와 에티오피아·케냐·우간다·탄자니아·남수단·르완다 등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곳곳에서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글로벌사회공헌단을 중심으로 서울대인의 희생과 봉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배들을 자랑스러워하듯이 개교 100주년, 200주년을 맞이하는 그날 후배들도 오늘의 우리들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서울대학교의 학문적 전통과 교육 환경 속에서 지덕체(智德體)를 연마해왔습니다. 각고면려(刻苦勉勵)의 노력으로 각기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지식함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독창적인 학위 논문을 완성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서울대학교 강의실과 교정 곳곳에서 아름다운 배움의 추억을 쌓아왔습니다. 각자의 전공과 관심 분야는 달랐을지라도, 여러분 모두는 인간, 사회 또는 자연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며 이해의 폭을 넓혀 왔습니다. 배움의 시간은 인내를 요구하지만, 즐거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다가올 시대의 창조적 주역이 될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헤쳐 나가야 할 미래는 결코 밝고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난관이 여러분의 앞날을 가로막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동안 다져온 역량과 지혜, 패기와 열정을 통해 그러한 불확실성에 과감하게 맞서 나가고자 하는 신념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창조적 도전은 여러분 스스로의 미래는 물론 서울대학교와 대한민국의 미래, 더 나아가 인류공동체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근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로부터 각별한 기대와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향되지 않은 균형적 사고, 단편적 지식을 극복하는 근본적 지성, 사익을 뛰어넘는 공익정신으로 끊임없이 정진할 때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는 밝은 영혼과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인 '선(善)한 인재'입니다. 냉철한 지성만큼이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과 세계를 더 풍요롭고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사회의 값진 보배가 될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만능주의, 성과지상주의, 배타적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계층 간 갈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에 기초하여 공동체적 가치를 사회전체의 기본 가치로 확립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서울대학교에서 연마한 지성과 덕성은 그 자체로서 매우 소중하고 탁월한 것이지만, 이러한 능력이 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善意志(guter Wille)'의 실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포용할 때, 그동안 쌓아온 지성과 덕성은 더욱 빛을 발휘할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공동체의 진정한 보배로 거듭 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현대 한국사에 아로새겨진 서울대학교의 고귀한 전통과 역사를 이어나갈 소중한

인재들입니다. 이제 국경을 넘어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창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은 따뜻한 감성, 충실한 지식, 그리고 창조적 지혜를 통해 우리사회와 지구촌의 문제들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헤쳐 나가야 할 미래는 경이로움과 희망으로만 채워져 있지만은 않습니다. 불확실성과 난관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더라도 지금의 눈부신 젊음을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기 바랍니다.

새로운 여정의 출발선 앞에 선 졸업생 여러분!

오늘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어려움에 맞서는 가장 큰 힘은 다름 아닌 '지성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학문의 전당인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꿔보십시오.

눈앞의 이익을 뛰어넘어 끊임없는 자기성찰, 그리고 헌신과 배려를 통해 인간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리하여 미래 대한민국을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십시오. 서울대학교는 여러분들이 계속 성숙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낌없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정신과 전통은 졸업생 여러분에 의해 면면히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여러분의 힘찬 미래를 위해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축복과 영광이 늘 함께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며, 영예로운 졸업과 새로운 출발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별첨2】 축사1 서정화 총동창회장

존경하는 성낙인 총장님. 모교의 교직원 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이신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난하고도 수준 높은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切磋와 琢磨를 거쳐 오늘의 성취를 이루신 후배님들, 애정 어린 지도로 학생들을 끌어주신 교수님들, 아마도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중 제일 큰 감동과 기대를 갖고 함께 하셨을 여러 부모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대학교는 국가와 민족을 이끌기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설립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함께 어울리면서 우정을 쌓아온 옆 자리의 친구들이 바로 동세대 최고의 인재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사제의 연을 맺고 충심으로 지도하시며 학문과 인생의 스승이 되신 모교의 교수님들께서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계신 지성이십니다.

그렇기에 서울대학교와 서울대인들은 항상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발전해왔습니다. 6.25 동란으로 대한민국이 존망의 위기를 겪었던 때에도 국민들은 줄곧 서울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배들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국가와 사회를 희생으로 선도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근대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발전 요인은 헌신되고 창의적인 그 인재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지금, 대학 또한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동창회도 모교와 후배들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의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조적 소수(Dominant Creative Minority)가 필요합니다. 저는 국가 발전의 前途를 열어낼 수 있는 지성,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겸손, 사회를 함께 변화시켜나갈 수 있는 참여와 봉사의 정신을 체득한 인재가 곧 대한민국의 리더이며 서울대인이 추구해야 할 모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성낙인 총장님께서 ‘창의적 역량과 굳은 의지를 겸비하고 국민과 함께 발전하는 선한 인재의 양성’을 서울대학의 교육목표로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처한 현실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할 어려움도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서울대인의 일원이 되심으로써 이미 여러분의 가능성을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당면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의기를 가지십시오.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지향하며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창조해낼 수 있는 지도적 지성인으로서 흔들림 없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가 품은 큰 꿈이 성취되어 국가와 국민의 행복으로 결실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모교와 함께, 민족공동체와 함께 발전하여 끝내 큰 역사를 이뤄내는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이 되시기를 믿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 서 정 화

【별첨3】 축사2 김인권 애양병원 명예원장

여러분들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해 전 어려운 경쟁력으로 자랑스러운 서울 대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그 후 피나는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졸업의 영예를 맞이하였습니다.

저도 1975년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졸업하자마자 5년의 전공의 수련기간을 거쳤으며 그 후 3년의 공중보건의 복무를 하여 졸업의 기쁨을 느낀 것은 정작 졸업 후 8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즉, 학업이나 수련기간이나 군대와 같이 해야만 하는 기간이 끝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막상 의무적 과정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자신만의 의사로 진로를 정해야 하는 더 어려운 선택의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 선택을 위해 제가 선배로서, 사회의 경험자로 몇가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너무 좋은 직장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좋은 직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상하 수직관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나타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또 조금의 실수도 포용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단점을 부각하여 여러분들이 여간 강심장이 아니면 그 사회에서 무사히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또 살아남는다고 하여도 여러분의 감성은 아주 무뎠다고 말할 것입니다.

춘추시대 초나라 장왕에게는 손숙오라는 유능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장왕은 손숙오의 도움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고 또 춘추시대의 패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숙오가 병에 걸려 죽게 되자 손숙오의 병상에 찾아가 슬퍼하며 그 아들인 손안을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손숙오가 죽자 왕은 손안을 불러 높은 벼슬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손안은 아버지의 유언이라며 높은 벼슬을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이에 왕은 손안에게 넓은 땅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마저 아버지의 유언이라며 사양을 했습니다. 그 후 손안은 가진 재산이 없이 무척 고생을 하였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왕은 다시 손안을 불러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손안은 침구라는 땅을 달라고 합니다. 왕과 신하들은 침구는 토질이 좋지 않아 아무도 원치 않는 땅이니 더 좋은 곳을 주겠다고 합니다. 손안은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벼슬과 토지를 사양하되 계속 왕이 권하면 토질이 가장 좋지 않은 침구를 달라고 하라고 하였다는 말을 전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왕이 바뀌고 신하들은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심지어 모략하여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토질이 좋지 않은 침구땅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손씨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무조건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할 뿐 아니라 즐겁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주위가 즐거워지고 활력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영어로 peacemaker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주위의 peacemaker가 되시기 바랍니다. peacemaker가 되려면 주위의 짐을 들어줘야 하고, 주위의 말을 경청해야 하며, 주위의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찬송을 부를 때는 큰 소리로 힘차게 부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 노래 가사에 저 자신이 감동하며 또다시 찬송을 하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능력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는 사람이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데 큰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하며, 오로지 열심히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얼마나 세련되게 잘하는 것보다 우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얻게 되며, 열심히 일하는 것에 여러분의 상사가 더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유일한 존재이고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사회나 조직에서 언제나 인정받고 잘 나가리라고 생각되지 않는 않습니다. 때로는 잘 안 풀리고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 독특한 능력이 있으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라는 성경말씀이 위안이 됩니다. 또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와 회복의 희망을 줍니다.

직장을 선택하게 될 때 또는 무슨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끄는대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결정에 후회가 없고 설령 후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첫 직장을 여수의 신평리에 있는 한센병 환자와 소아마비 장애자들을 주로 치료하는 병원으로 정했습니다. 이곳은 세계 아무 지연과 혈연이 없는 곳입니다. 크라코 이곳에 있던 의사들 역시 저와 아무 학연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곳의 일이 제 마음에 들고 이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 큰 동요없이 34년간을 봉직하게 된 제일 큰 힘은 이 선택을 내 자신이 했고,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정년을 맞이했고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해 달라고 부탁을 듣게 될 때 제가 바른 선택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작은 조직에 들어와 즐겁게 일을 했고 열심히 일을 했으며 그 결과 주위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조직에 아직도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합니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보면 이제 인생의 첫걸음을 내 딛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부디 앞길을 잘 선택하시어 먼 훗날 인생을 마무리를 하게 될 때, 이 순간이 여러분의 행로에 후회가 없는 선택이 됐다고 자부할 수 있는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8월 29일

여수애양병원 명예원장 김인권

【별첨4】 졸업생 대표 연설문

제70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맞이하여 이 자리를 빛내주려 참석하신 존경하는 총장님 이하 교직원 및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400여 명의 졸업생을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현재 이곳에 저보다 훌륭한 졸업생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여기 서있다는 사실이 부담도 되고,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그저 평범한 졸업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서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께 지극히 평범한 한 학생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느낀 소소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대학에 와서 이전까지와 가장 다르다고 느낀 점은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수강할 강의부터 동아리, 인간관계, 심지어는 식사 메뉴까지 모든 것이 제가 선택하기 나름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본인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에 따라 어떤 그림도 그려나갈 수 있는 흰 도화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선택지의 홍수 속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선택한 가치 중 하나가 바로 ‘봉사’입니다. 저는 네 번의 방학을 국내 교육소외지역 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봉사 활동을 하며 보냈고, 교육나눔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며 교내 봉사단 단장으로까지 활동했을 정도로 대학 생활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봉사활동과 겸행했습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 봉사란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시간을 채우기 위해 반강제로 보내야 했던 따분한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와서 강제성을 떼어내고 제 의지로 하고 싶은 봉사를 하면서 나눔의 즐거움을 깨달았습니다.

봉사를 통해 ‘긍정적 마인드’ 또한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 과정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긍정적 사고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동안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작은 일들에 불평, 불만하며 지내던 스스로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긍정적 마인드를 갖추자 어떤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이

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 역시 얻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줄 알게 된 후, 봉사를 하는 이유 역시 새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서울대학교 졸업장을 받게 된 것은 물론 제가 열심히 한 결실이기도 하지만, 제가 잘났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분명 저보다 뛰어난 재능을 갖췄지만 좋은 교육 환경이,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그러한 재능을 꽃피우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받은 사람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사실에 감사하며 어떻게든 작은 형태로라도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학우 여러분, 오늘부로 우리는 서울대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나아가 더 큰 사회, 더 큰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에서 저는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어려움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서울대에서 얻은 값진 경험들을 떠올리며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려 노력할 것이며, 제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듯 그저 평범한 졸업생에 지나지 않는 저에게 있어서도 4년 넘는 대학생활에서 얻은 경험들은 앞으로의 더 큰 사회에서의 생활에 있어 초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졸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서울대학교와 함께한 지난 시간이 비슷한 의미로 남기를 바라며, 혹시나 저처럼 스스로가 ‘그저 평범한 졸업생’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감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평범한 졸업생이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서울대학교에서 보낸 시간, 노력한 결과들이 있기에 여러분 모두는 특별한 졸업생이며, 오늘은 충분히 축하받아 마땅한 날입니다.

다시 한 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졸업생 대표 최교윤